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文字를 活用한 陶瓷 文房諸具
製作에 관한 研究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吳 昌 林

2014 年 8 月

文字를 活用한 陶瓷 文房諸具
製作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吳 昌 潤

吳 昌 林

이 論文을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6月

吳昌林의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박 현 영



委 員 이 광 진



委 員 오 철 훈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14年 6月



목 차

Summary	i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II. 문자와 문방제구 및 제주 이미지의 일반적 고찰	5
1. 문자문명의 발생과정	5
2. 문방제구의 역사적 고찰	8
3. 도자 문방제구의 특징	21
4. 제주자연의 토착이미지로써 현무암	22
5. 제주자연의 명명화(命名化)로 파생된 문명이미지로써 백록담	24
III. 문방제구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27
IV. 시작품의 제작과정 및 설명	29
1. 시작품의 제작 배경	29
2. 시작품의 제작 과정	29
3. 시작품의 설명	33
V. 결론	47
참고문헌	

A Study on Making Ceramic Stationaries Utilizing Written Letters

Oh, Chang Rim

*Industrial Art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Oh, Chang yoon

Summary

Ceramics and written symbols have been so closely related with human history that it is hard to think of them as separate notions from human life. Ceramics are to the containers that hold objects as what written symbols are to those that hold people's thoughts.

The Korean people have a time-honored tradition of worshipping literary arts and respecting the virtue of loyalty. Therefore, they have cherished their stationaries that are necessary for disciplining themselves while studying. Particularly, the four items including a piece of paper, a writing brush, an ink stick, and an ink stone used to be called 'Munbangsawoo', or four friends in the study, meaning the four essential items that

were found in a scholar's room at all times. However, Koreans have dealt with their written symbols differently over time in terms of where and how those stationaries are used. The modern stationaries are focused more on their functions and conveniences than ever. While seeking a super high speed change and undergo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the Korean society has become inundated with foreign cultures, which is weakening the basis of the culture cherishing written letters. New stationaries, from a fountain pen to a ball-point pen, have been introduced to allow people to communicate in a written language, and now computers are used to make documents.

With the chronological changes in mind, this study focuses on producing ceramic stationaries with Korea's long-cherished art of written letters inscribed onto the surface of the potteries. This attempt will help overcome the limits of time that paper is to face eventually and other limits of space and time that are posed on the traditional calligraphy, a two-dimensional art.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herit the spirit of classical scholars by creating ceramic artworks with the black-and-white contrast of the indigenous image of Jeju's basalt rock and the civilized image of the local society harmonized under the scenery of Baeknokdam, or the summit of Hallasan Mountain. These two different images will replace the contrast seen in the traditional art of calligraphy that uses paper and ink. Adopting

calligraphy-writing as a decorative method will also suggest how to combine the traditional art of writing with the invariability of ceramic arts, which is one of the practical ways to utilize the art of calligraphy.

The use of fire and tools improved productivity, and early mankind began to make containers as they had to store surplus produces. Regardless of the chronological changes or regional boundaries, ceramics have existed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since their birth, while maintaining the compatible values of practical uses and artistic uses. The art of written letters has developed in the same manner, with unchanged characteristics of seeking the same values.

Changes in the stationary products vividly reflect the aspect of the purpose-oriented modern society where processes of living are less valued, and instead, means of living are misinterpreted as purposes of life in the information age that keeps changing at a remarkable speed. For example, ink has become commercialized instead of an ink stick that has to be grinded with water for use. And plastic goods have come to replace old types of ink stones, brush holders, and paperweights. In the above-mentioned examples, people justify their instant ways of thinking that only serve to fulfill the purpose of writing something well, while losing a quality life where they discipline themselves by doing such hard work as grinding an ink stick.

In this study, ceramic stationaries were inscribed with famous words or phrases whose meanings were chosen according to the function and features of each product. Using or just appreciating the stationary products with the sayings inscribed on will help people upgrade the leisurely life or mind of scholars to the lifestyle that offers them a 'healing' moment.

The motive of the study outcome is the indigenous image of basalt rock, the most representative natural feature of Jeju Island in terms of the shape and the texture. The subject of the inscribed image is Baeknokdam, or the summit of Hallasan Mountain, which depicts Jeju, a place of exile, as a civilized society where scholars resided and refused to return to the political sphere, which is one of the cultures that formed the basis of this island's human environment. In addition, the traditional calligraphy that highly depended on the paper culture, and therefore one-dimensional, has been combined with the ceramic arts in the outcome of this study. This attempt will free the artwork from those limits of time and space that the art of calligraphy used to have, while allowing to explore potentials to utilize calligraphy in the modern times.

I hope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a continued research on the expressive techniques and materials that can realize the minds of calligraphy-writers and the invariability of ceramic arts.

표 목차

표 1. 백상감 성분 및 조합비.....	30
표 2. 철화 안료 성분 및 조합비.....	31
표 3. 투명 백유 성분 및 조합비.....	31
표 4. 소성곡선표(1차, 2차).....	32

도 목차

도1. 귀갑문(龜甲文)	6
도2. 수골문(獸骨文)	6
도3. 종정문(鐘鼎文)	6
도4. 석각문(石刻文)	6
도5. 채도문자(彩陶文字)	7
도6. 도편묵서(陶片墨書)	7
도7. 사랑(舍廊)	9
도8. 죽간(竹簡)	9
도9. 목독(木牘)	9
도10. 문관용(文官筒)	10
도11. 다호리 출토 붓과 삭도(削刀)	11
도12. 신라양가상묵(新羅楊家上墨), 신라무가상묵(新羅武家上墨)	13
도13. 백자벼루(백제)	15
도14. 도기벼루(백제)	15
도15. 붓꽂이벼루(신라)	15
도16. 함통6년명(咸通6年銘)벼루	15
도17. 백자사각산수문연적(白磁四角山水紋硯滴)	16
도18. 백자도형연적(白磁桃形硯滴)	16
도19. 도자원형연적(陶瓷猿形硯滴)	17
도20. 백자필산(白磁筆山)	17
도21. 청화백자필산(靑畫白磁筆山)	17
도22. 자연석필산(自然石筆山)	18
도23. 당조일품명필산(當朝一品銘筆山)	18

도24. 도자쌍문진(陶瓷雙文鎭)	18
도25. 투각문필통(透刻紋筆桶)	19
도26. 청화백자명문필통(靑畵白磁銘文筆桶)	19
도27. 지통(紙桶)	19
도28. 육각형지통(紙桶)	19
도29. 봉니(封泥)	21
도30. 서예용구세트	27
도31. 플라스틱 베틀	27
도31. 플라스틱 필산	28
도31. 플라스틱 연적	28

작품 목차

작품 1. 독좌관심명(獨坐觀心銘) 벼루	34
작품 2. 비인마묵묵마인명(非人磨墨墨磨人銘) 행연(行硯)	36
작품 3. 수복명(壽福銘) 연적(硯滴)	38
작품 4. 락명(樂銘) 화병(花瓶)	40
작품 5. 산수문(山水紋) 문진겸용필산(文鎭兼用筆山)	42
작품 6. 사선명(寫禪銘) 필통(筆桶)	44
작품 7. 삼여명(三餘銘) 지통(紙桶)	4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신념·행위의 총체로서의 문화는 도구의 사용과 더불어 인류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언어·관념·신앙·관습·규범·제도·기술·예술·의례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의 존재와 활용은 인간 고유의 능력, 즉 상징적 사고(언어의 상징화)의 능력에서 기인한다.¹⁾ 그리고 주어진 여러 환경 조건에 맞게 적응하면서 살아온 한 집단의 생활 양식을 일컫는 문화는 언제나 자연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 자연환경은 각 지역과 민족문화의 내용을 규정한다.²⁾

따라서 한국의 문화는 한국적 풍토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생성 발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문화 또한 독특한 지역적 풍토와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생성 발전해왔다. 제주의 바람과 돌이 만들어낸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주인의 삶의 터전 곳곳에 돌을 이용한 다양한 돌문화가 형성되었다.

한편 이조의 건국 초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대의명분을 가진 충절가문(忠節家門)의 입도(入島)로 과생된遁世(遁世)의 철학적 삶의 인문환경은 제주특유의 산림처사(山林處士)³⁾적 선비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절해고도(絶海孤島)인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는 절대왕조시대의 정치적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유배지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한계상황이 만들어낸 유배(流配)문화는 한편으로 중앙의 거물정객(政客)들의 입도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당시의 사회지도층의 고급문화인 사대부문화의 일단을 수입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8m0915b>

2) 오창윤, 백자 한식기 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단국대학교대학원, 2001, pl

3) 조선시대 한 학과나 지역 사대부의 지도자, 또는 중추적 지위에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말. 원래 산림이란 산림처사(山林處士), 산림학자(山林學者)와 같이 관직을 하지 않고 은거한 인물을 상징하는 수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초야의 선비가 아닌 국가적으로 대우받은 사림(士林)의 명망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예로부터 문(文)을 숭앙하고 의리(義理)를 존중했던 선조(先祖)들은 학문을 연마하고 정신을 수양하는데 필요한 문방제구를 소중히 다루어 왔다. 문방(文房)이란 문사(文士)의 방이라는 뜻으로 문翰(文翰)을 다루는 곳이다. 문사들은 문방에서 독서를 하기도 하고 서화를 감상하거나 시문(詩文)을 짓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등 하루의 대부분을 문방에서 보냈다. 문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도구를 문방보품(文房寶品)이라 한다. 문방보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종이, 붓, 먹과 벼루를 선비의 방에 없어서는 안 될 벗으로 여겨 문방사우(文房四友)라 일컫는다.

과거와 현재의 문자생활 방식과 문방제구(文房諸具)의 사용처나 방식은 시대흐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있다. 초고속을 지향하는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 전통문화의 뿌리는 더욱 취약해졌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적 욕구가 다변화되면서 전통에 대한 인식 또한 호의적으로 변화하는 면이 없지 않다. 단순히 보고 느끼는 감상의 대상에서 직접 만지고 체험해보는 향유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비하면 전통적인 문방구의 제작이나 장식적 표현기법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모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온 문자예술(文字藝術)을 도예의 시문(施紋)작업에 응용한 문방제구 제작을 통해 종이의 시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서예적 표현의 현대적 효용성을 모색하고자한다. 또한 종이와 먹이라는 전통서예의 흑백이미지를 제주의 현무암이라는 토착이미지와 백록담⁴⁾이라는 문명화⁵⁾된 이미지로 치환하여 도예에 접목한 작품시도를 통하여 옛선비의 정신문화를 힐링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도예작업에 있어 불변(不變)의 장식성(裝飾性)이 있는 서예작품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4) 백록담이라는 이름은 옛 신선들이 백록주(白鹿酒)를 마시고 놀았다는 전설과 흰 사슴으로 변한 신선과 선녀의 전설 등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편 “녹담오월방신청 잔설영룡일경천 鹿潭五月放新晴 殘雪玲瓏一鏡清)오월까지 남아있는 백록담의 잔설이 햇빛을 받아 영롱한 모습이 유리거울처럼 아름답다-작자미상”하여 녹담만설은 영주십경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5) 명명(命名)되어 불리어짐으로써 문명화된 이미지(p.24 참조)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시작품제작에 있어 필요한 이론적 고찰로써, 문자문명의 생성과정을 살펴보고 문방과 문방제구의 고찰을 통해서 그 형태와 기능에 따른 특징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주의 이미지 중에서 현무암의 토착이미지와 제주자연의 명명화로 문명화된 이미지의 상징으로써 백록담을 고찰함으로써 시작품 제작의 기틀로 삼았다.

둘째, 문방제구의 현황분석을 진행하여 개선장향을 모색하고 실질적 연구인 작품제작에 있어 선행연구가 되게 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향을 토대로 단순 도자제 문방구 제작이 아닌 문자의 활용을 통한 서예적 표현의 현대적 효용성을 모색한 도예시작품을 제시하고자한다.

작품의 성형방법은 문방제구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물레성형과 판성형 및 속파기 등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도자제 문방구를 제작함에 있어 문방제구의 특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전통서예의 기법을 가미한 도예작품의 분위기에 적절한 시문(施紋)의 장식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따라서 시작품 제작은 흑토로 판성형을 이용하고 백상감(白象嵌)한 뒤 무유소성(無釉燒成)⁶⁾하거나, 백토로 물레성형하고 철화안료를 사용하여 유려한 필체로 시문(施紋)하고자 한다. 이는 흑자(黑磁)인 경우 흑과 백의 이미지배색의 대비를 통해 제주의 현무암의 까마득한 시원성(始原性)과 선비의 고결하면서도 냉철함을 모던하고 차가운 이미지⁷⁾로 표현하고자 함이며, 백자(白磁)인 경우 역시 배색의 이미지를 통해 선비의 검소한 일상과 세속을 벗어난 걸림 없는 삶의 이상을 철

6) 질그릇의 거친 표면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흔히 유약(釉藥)이라는 젓물을 바르고 굽게 되면 광택이 있고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는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시작품 대부분의 경우 거칠고 투박한 질그릇의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유약(釉藥)을 바르지 않고 재벌소성하였다.

7) LRI색채연구소, 『102가지 Color Training』, 영진닷컴, 2004, P117

화 안료로 일필휘지(一筆揮之)함으로써 깨끗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이미지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작품제작 범위는 벼루, 연적, 문진, 필산, 필통, 지통으로 하였다.

8) 上揚書, P115

II. 문자와 문방제구 및 제주 이미지의 일반적 고찰

1. 문자문명의 발생과정

인류는 오랜 원시시대 동안에도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왔지만, 문자를 사용한 기간은 오래되지 않는다. 문자를 사용하려면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인지능력이 필요하고, 사회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경제 등 사회적 제반 여건이 복잡해지면서, 이를 기록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비로소 문자의 발생을 촉진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는 한글이며,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자를 주로 사용하였다. 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외국어로 수용된 한자의 사용은 국내 사용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문자로 변해갔다. 문자를 수용하기 이전에는 청동기나 암각화에 보이는 그림이나 기호가 있었다. 문자의 수용은 그림에서 문자로의 이행이며, 역사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⁹⁾ 동방의 서사 문화(書寫文化)의 연원은 중국의 은허시대(殷墟時代)에 시작되었으며 한자문화(漢字文化)와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귀갑(龜甲)과 수골(獸骨)에 새겼는데 귀갑문(도1)과 수골문(도2)을 줄여서 흔히 갑골문자(甲骨文字) 또는 은허문자(殷墟文字)라고 한다.¹⁰⁾ 갑골문자 다음에는 금속이나 돌에 글자를 새기거나 주조하는 금석문(金石文)시대로 이어지는데 흔히 금속에 주조한 것을 종정문(鐘鼎文) 또는 금문(金文)(도3)이라 하고 돌에 새긴 것을 석각문(石刻文)(도4)이라 한다. 금석문과 함께 도문(陶文)도 볼 수 있는데, 니토(泥土)로 만들어진 명문(銘文)의 기물은 크게 도기(陶器)와 전와(磚瓦)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과 화북에서 출토된 채도(彩陶)는 신석기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자와 비슷한 부호가 있다. 특히 중국 감숙(甘肅)의 신점(辛店)에서 출토된 것의

9) 國立中央博物館, 『文字, 그 以後』 國立中央博物館, 2011, p7

10) 기원전 1500년경 황하의 중 하류에서 발생한 은허왕조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점을 치고 거북의 등딱지나 짐승의 뼈에 기록하였는데, 그 점복(占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한자의 기원인 갑골문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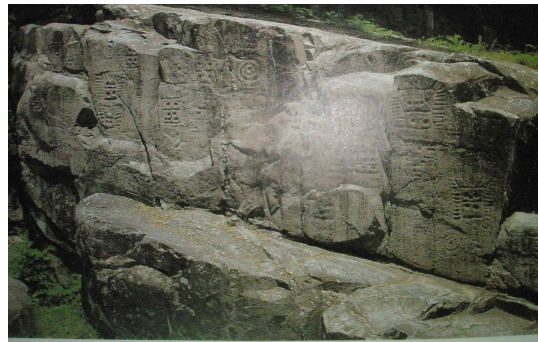
도1. 귀갑문(龜甲文)



도2. 수골문(獸骨文)



도3. 종정문(鐘鼎文)



도4.石刻文(石刻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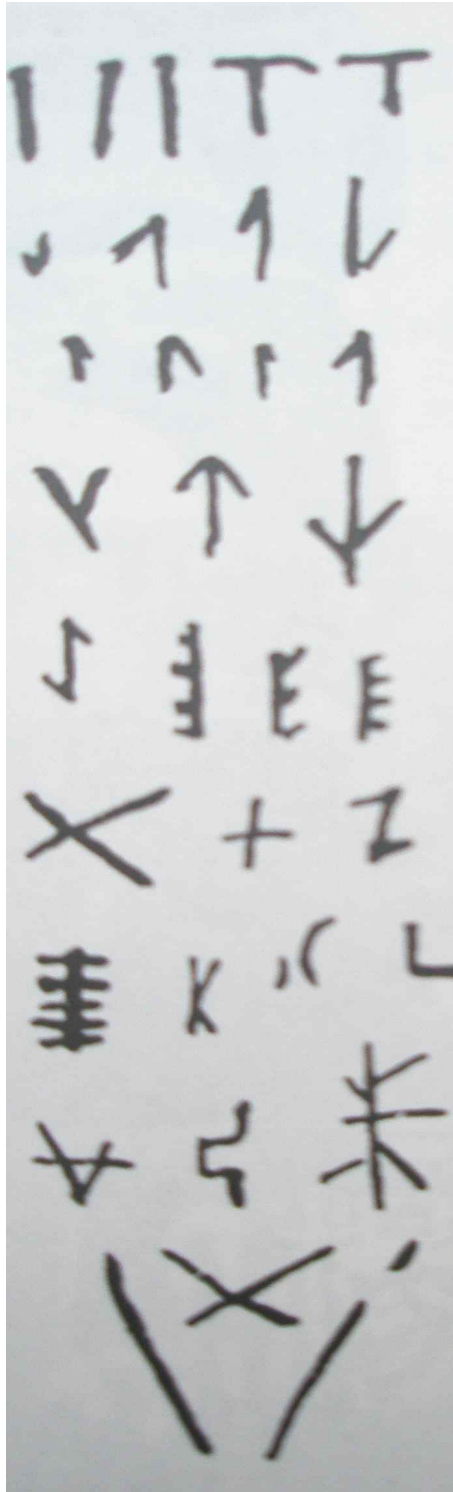
부호는 족징(族徵)과 숫자로 여겨지는데 중국문자의 원시현상으로 본다.(도5) 안양(安陽)에서 출토된 은대(殷代)의 도기(陶器)에도 굵은 획의 간단한 글자들이 있는데 거의가 숫자이거나 기물주인(器物主人)의 이름이다. 그 중에 한 편의 깨어진 도기조각에서 필묵으로 크게 쓴 「축(祝)」자가 남아있다.(도6) 산둥(山東)에서 출토된 춘추시대(春秋時代)의 도편(陶片)에는 「제인망획육어일소구(齊人網獲六魚一小龜)」¹¹⁾의 9자가 얇게 새겨져 있는데 자체(字體)가 이미 꽤 성숙되어 있다.¹²⁾

금석문시대를 거치면서 죽간(竹簡), 목편(木片) 겸백(縑帛)¹³⁾시대로 이어진다.

11) 제나라 사람이 그물로 물고기 여섯과 거북 한 마리를 얻었다.

12) 宣柱善, 『書藝概論』, 美術文化院, 1986, pp38,39

죽간이나 목편은 적당한 넓이와 길이로 쪼개서 글자를 쓰고 아래위를 가죽끈 이



도5. 채도(彩陶)문자



도6. 도편묵서(陶片墨書)

13) 합사비단(명주실로 짠 피륙)

나 노끈으로 엮어서 사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 경제적 제반 여건이 복잡해지자 죽간(竹簡) 목찰(木札) 겸백(縑帛)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보관방법도 어렵게 되었다.

동한(東漢) 원흥원년(元興元年;서기105년)에 채륜(蔡倫)이 제지법(製紙法)을 화제(和帝)에게 보고했던 해를 일반적으로 종이의 발명 원년으로 보고 있는데 종이의 발명은 문자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더욱 많은 양의 정보를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전시대(前時代)의 역사를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는 유적이거나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파악하는 반면, 문자를 사용한 역사시대에는 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는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해하기가 더욱 쉽게 되었다.

2. 문방제구의 역사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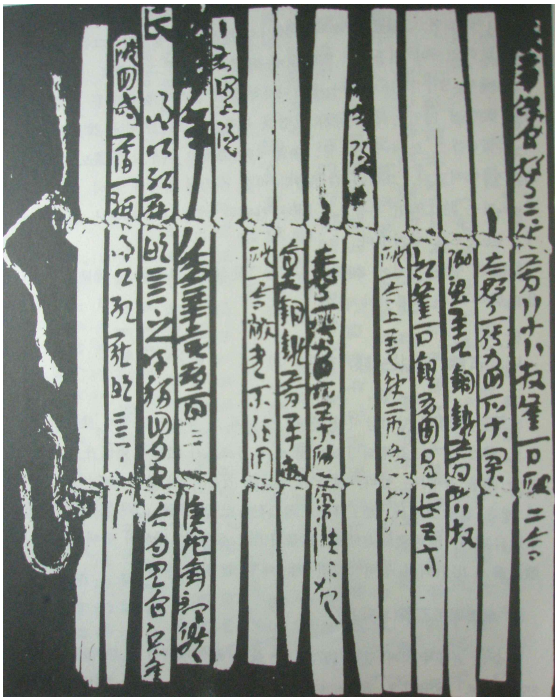
『중문사전(中文辭典)』에 보면 문방이란 “위전장문한지처야(謂典掌文翰之處也)”라고 했다. 이는 문한(文翰)을 다루는 곳, 즉 문사들의 방이라는 뜻이다.

군자(君子)의 나라로 명성을 구가(謳歌)하던 우리 선조들은 방정(方正)한 예의와 고고(孤高)한 지조(志操)를 중시하였고, 그 생활 방식에 있어서는 소박하면서도 품격과 풍류의 멋을 즐기며 살아왔다. 이런 선비들의 멋이 가장 상징적으로 표출된 곳이 문방(文房)이다.(도7) 문방은 사랑채로도 불리는데 부녀자들의 주거공간인 안채와는 전혀 다른 선비들만의 공간이었다. 선비들은 이곳에서 벗과 더불어 시를 읊고 서화를 감상하기도 하며 철학적 혹은 정치적 담론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선비들의 방, 즉 문방(文房)이라 일컬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필기구는 거의 붓과 먹에 의존하였다. 붓은 글자를 쓰는 연필이나 펜의 역할을 했고, 먹과 버루는 연필심이나 잉크의 역할을 했으며, 종이는 공책의 역할을 했다.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오늘날 종이에 해당



도7. 문방(文房)



도8. 죽간(竹簡)



도9. 목독(木牘)

하는, 글 쓰는 바닥재료인 대나무 혹은 나무의 조각인 죽간(竹簡)(도8)과 목독(木

牘)(도9) 그리고 칼 등이 있었다. 칼은 잘 못 쓴 부분을 고치거나 나무를 깎을 때 썼으며, 숫돌은 칼을 갈기 위한 도구였다. 붓, 칼과 숫돌은 마치 오늘날의 연



도10. 문관용(文官俑)

필과 지우개, 연필깎이와 같은 필기도구였다.

진시황릉 내성 안쪽에 있는 구덩이에서 출토된 문관용(文官俑)¹⁴⁾의 오른쪽 허리춤에 칼과 숫돌 주머니가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대의 문필관리((文筆官吏)는 이처럼 필기도구를 항상 지참하고 있었다.(도10)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붓과 칼, 경남 김해 예안리 유적에서 칼과 숫돌이 나오고 있어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도 이미 문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문방구의 활용과 전개는 문자의 전래, 활용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일찍이 낙랑지역이나 김해 고촌리의 서안을 비롯하여, 창원 다호리의 붓과 삭도(削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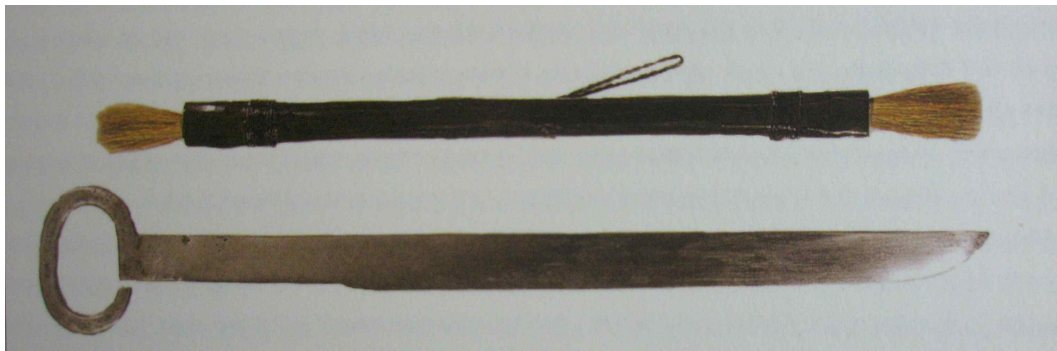
14) 문관용은 칼과 붓의 관리 즉 "도필지리(刀筆之吏)"로 실무에 종사하는 말단 관리를 일컫는다.

15) 前掲書, p17

11)에서부터, 삼국시대 왕경(王京)이었던 부여나 경주 등에서 규모 있고 다양한 벼루들이 출토되고 있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벼루는 왕경(王京)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문자사용의 확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먹을 제작하는 전문공방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쇼꾸라엔(正倉院) 신라촌락문서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가로 세로로 줄을 치는 자도 있었음이 확실하다. 16)

문방에는 책과 종이, 붓, 먹, 벼루, 책장, 책꽂이, 문갑, 사방탁자, 고비, 경상, 책상, 지통, 필통, 연상, 연적, 필가, 연갑, 필세, 서판, 인래,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문방에 없어서는 안 될 종이, 붓, 먹, 벼루를 뜻하는 지필묵연(紙筆墨硯)은 학문하는 선비가 늘 가까이 하는 벗과 같다고 하여 문방사우(文房四友)라 불렀다. 중국에서는 문방사보(文房四寶)라 하기도 하고, 혹은 문방사후(文房四侯)라고 의인화하여 벼슬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방의 물건들의 제작 시기를 보면 조선시대 이전의 작품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물로는 종이, 벼루, 먹, 붓, 연적에 한하며 그 나머지는 조선시대의 것들이 거의 전부이다.17)



도11. 다호리 출토 붓과 삭도(削刀)

1) 붓(筆)

붓의 구조는 대개 필관(筆管)과 붓털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털의 품질이 붓의 품질을 좌우한다. 필관의 재료는 실용성(實用性)과 장식성(裝飾性)의 여부에 따라 나무, 대나무, 도자기, 금속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16) 前掲書 p62

17) 신나숙, 『陶器製 文房具類 開發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산업미술대학원, 1990, p4

붓은 약 6천년 전 중국 앙소문화(仰韶文化)시기에 사용한 흔적이 보고 되고 있다. 현재 고고학계에서 붓을 발굴한 가장 이른 시기는 전국(戰國)시대이고, 진한(秦漢)시대의 붓은 많이 출토되었다.

근년(近年)에 감숙성(甘肅省) 무위(武威)에서 출토된 한대(漢代)의 붓 두 자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백마작(白馬作)' '사호작(史虎作)'이라고 붓을 만든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붓 가운데 붓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최근에 발굴된 고대의 붓을 살펴보면 장사초필(長沙楚筆), 거연한필(居延漢筆), 무위한필(武威漢筆), 운몽진필(雲夢秦筆), 강릉한필(江陵漢筆), 우리나라의 다호리 붓 등이 있다.

장사초필(長沙楚筆)은 1954년 6월 중국 호남성 장사에서 전국시대의 목곽묘(木槨墓)에서 출토된 모필이다. 고고학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붓으로 보고 있는데 붓대는 대나무로 만들어졌고 원주형이다. 붓의 길이는 총17cm로 필관이 12.8cm, 털의 길이는 4.2cm, 직경은 0.5cm이다. 붓대를 깎아 털을 삼입하였고 붓털은 토끼털을 사용했다.

무위한필(武威漢筆)은 1957년 감숙성 무위현의 한묘(漢墓)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1972년 같은 곳 후한묘에서는 길이 22cm, 필관에 예서체로 백마작(白馬作)이라는 장인의 이름이 새겨진 낭호필(狼虎筆)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경남 창원 다호리(茶戶里)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용품 7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길이 23cm정도의 필관에 옷칠 된 다섯 자루의 붓이 나왔다.(도11) 이로써 우리 고대사에서도 붓이 실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¹⁸⁾

2) 먹(墨)

오늘날 쓰이는 먹은 중국 은대(殷代)의 갑골문에 보이는 먹글씨의 흔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먹은 탄소가 주원료이므로 물에 녹지 않는다. 지금은 카본이라는 화학재료가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체의 먹은 그을음에서 얻어졌다. 먹의 원료를 크게 둘로 나누면 유연(油煙)과 송연(松

18) 정태수, 『文房四友길라잡이』, 월간서예문화, 2000, p36

烟)이다. 송연묵(松烟墨)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교와 향을 섞어 가공한다. 유연묵(油煙墨)은 오동나무 기름이나 마유(麻油) 등의 기름이 연소될 때 생기는 불연물(不燃物)로써 일종의 순수한 탄소분자이다. 여기에 향과 아교를 혼합해서 만든다. 먹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한대(漢代)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최초의 제묵가(製墨家)는 삼국 위(魏)나라 때의 서예가 위탄(韋誕)이다. 당나라에 이르러 해초(奚超)와 정규(廷珪) 부자가 소나무 그을음에 아교를 섞는 제묵법(製墨法)을 고안해 먹색에 광택이 나게 하였다. 먹의 가치는 실용적인 면과 완상(玩賞)을 위한 장식적인 면이 있다. 『묵경(墨經)』의 기록에 의하면 먹색은 자색(紫色)이 으뜸이고 검은색은 둘째, 청색이 셋째, 백광(白光)은 하품이라고 한다. 먹의 원료로는 오동나무 기름이 상품, 송연이 그다음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의 먹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다. 그 먹은 현재 일본의 쇼꾸라엔(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다.(도12)



도12. 신라양가, 무가상묵(新羅楊家,武家上墨)

3) 종이

인류의 문화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종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화의 기록이 종이로 인해 보존되고 교육되며, 또한 후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종이는 중국 역사상 4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후한(後漢)의 채륄(蔡倫)이 발명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오늘날 고고학계에서 발굴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한시대(前漢時代) 이미 마지(麻紙)의 제조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수(隋)·당(唐)·오대(五代)에 이르러 종이의 수요가

19) 前掲書 p37

20) 李年洙, 『文房寶品』, 이화문화출판사, 2001, p13

늘어남에 따라 제작 방법은 점점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제지 원료는 닥나무, 뽕나무, 등나무, 부용나무 껍질 등으로 확대되었다.

문방사우(文房四友)중에 종이는 유독 우리나라의 것이 유명한데, 정유산(丁酉山)²¹⁾의 『문방첩(文房帖)』에 “우리 나라 호남과 영남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그 만드는 방법은 같으나 그 질은 크게 다릅니다.~~중략~~ 남원과 순창의 종이가 예전부터 좋다고 합니다.” 라는 대목이 보이고 송나라 조희곡이 지은 『동천청록』에 “고려지(高麗紙)란 것은 면견(綿繭)으로 만들었는데 빛깔은 비단처럼 희고 질기는 명주와 같아서 먹을 잘 받으니 사랑할 만 하며 이는 중국에 없는 것이라 역시 기품(奇品)이다.”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면견(綿繭)은 곧 잠견(蠶絹)이다. 천하명필인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첩(蘭亭帖)도 고려지(高麗紙)에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조 세종 2년에 왕의 특명으로 장의사동(지금의 세검정)에 설치한 조지소(造紙所)의 제품도 “종이의 품질이 곱고 좋다” 는 기록이 전해진다.²²⁾

4) 벼루(硯)

근대 이전 문방사우(文房四友)인 종이·붓·먹·벼루는 지식의 습득과 전달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문방사우 가운데 벼루는 소모성이 있는 붓 종이 먹과 달리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더하였다.

중국 최초의 벼루는 반과유적(半坡遺跡)²³⁾에서 출토된 먹을 가는 도구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사용된 먹은 석묵(石墨)이었다. 고대 벼루는 구리, 쇠, 도기, 돌 등 여러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졌고 형태도 다양하다.²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벼루는 발달된 토기 만드는 기술을 응용하여 도제벼루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후 청자, 분청, 자기 만드는 기술을 응용하여 벼루를 만들었다. 고려시대부터 점차 돌을 재료로하는 벼루를 만드는 것이 보편화된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발달로 문(文)을 숭상하고, 곁에 두고 늘 사용하는 벼루는 일종의 장식품으로 장식적인 기능이 많이 강조되었다.

21) 다산 정약용의 큰아들로 이름은 학연, 유산은 그의 호이다.

22) 하승우, 『文房寶品百選展』, 공화랑, 2000, p36

23) 중국의 섬서성 서안시에 소재한 고대의 유적으로 1953년 서안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현재 유적지 자체가 반과박물관으로 조성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24) 정태수, 『文房四友길라잡이』, 월간서예문화, 2000, p39

이러한 벼루의 형태는 장방형(長方形)·원형(圓形)·풍자형(風字形)·타원형(橢圓形) 등이 있으며, 장방형이 기본형이다. 장방형의 벼루를 장방연(長方硯) 또는 사직연(四直硯)이라 부르고, 장방형이되 벼루 바닥과 물집이 따로 없이 민자로 만든 벼루를 판자와 같다하여 판연(板硯)이라 부른다.

벼루의 주요 구조를 보면, 먹을 갈고 먹물을 보관하는 바닥과 물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벼루의 각 부분엔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 먹을 가는 부분을 연당(硯堂), 또는 묵도(墨道)라 하고 먹물이 모이도록 된 오목한 곳을 연지(硯池), 묵지(墨池), 연해(硯海) 등으로 불리었다.

벼루가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먹이 잘 갈려야 하고 고유의 묵색이 잘 나타나야 한다. 또한 먹물이 잘 마르지 않아야 하며, 돌이 너무 무르거나 단단하지 않아 마모가 심하지 않고 벼루 만들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붓망이 잘 서있어야 한다. 붓망이란 연당 표면의 꺼끌꺼끌한 면을 일컫는데, 여기에 물을 붓고 먹을 마찰시킴으로써 먹물이 생긴다. 따라서 붓망의 강도가 알맞아야 한다.



도13. 백자벼루(백제)



도14. 도기벼루(백제)



도15. 붓꽃이벼루(신라)



도16. 함통6년명(咸通6年銘)벼루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삼국시대의 시작과 함께 벼루가 사용되고 있는데, 백제 사비시대의 백자벼루(도13)와 도기벼루(도14), 통일신라시대의 붓꽃이 기능이 있는 벼루(도15)와 '함통6년'명(咸通6年銘) 벼루가 출토되기도 했다.(도16)

그 종류는 돌로 된 것 이외에 옥(玉)으로 만든 것도 있고, 흙을 구워서 만든

자연(瓷硯)도 있다. 흙으로 빚은 것 가운데에는 와연(瓦硯)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⁵⁾

고려시대 이후 실용적인 면에서 발묵(潑墨)의 우수한 점과 디자인 면에서 조각하거나 다루기 쉬운 돌벼루가 많이 이용되어 문방공예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다.

5) 연적(硯滴)

연적은 벼루에 붓는 물을 저장하는 용기로써 다른 어떠한 재료보다 도자기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기물이다. 이러한 연적의 특성상 아연(亞鉛)이나 청동(靑銅)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형태나 크기 등 양식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고, 문방도구에서 가장 장식적인 면에서 뛰어나 오늘날까지도 문방의 총아로 수장가(守藏家)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물건이 바로 연적이다.

연적의 형식은 기하형(幾何形)(도17), 식물형(植物形)(도18), 동물형(動物形)(도19)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기하형 연적은 사각형(四角形), 다각형(多角形), 원형(圓形)순으로 많다. 사각형 연적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제작기법의 수월성도 있으나 방정(方正)한 기풍(氣風)을 좋아했던 유림(儒林)의 사상을 대변한 일종의 풍조라 할 수 있겠다.



도17. 백자사각산수문연적(白磁四角山水紋硯滴)



도18. 백자도형연적(白磁桃形硯滴)

25) 李年洙, 『文房寶品』, 梨花文化出版社, 2001,p33



도19. 도자원형연적(陶瓷猿形硯滴)

연적에 시문(施紋)된 문양은 대체로 식물문, 동물문, 칠보문(七寶紋), 팔괘문(八卦紋), 산수문(山水紋), 만자문(卍字紋)등 일상의 주변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시문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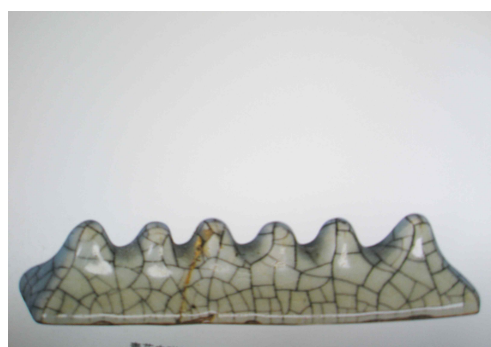
6) 필산(筆山)

필산(筆山)은 글씨를 쓰다가 잠시 걸쳐놓는 베타형식의 산을 일컫는다. 사용하던 붓은 먹물이 묻어있기에 함부로 두기가 어려워 필산(筆山)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재료나 형식 등이 연적만큼이나 다양하다.(도20), (도21), (도22), (도23)

중국에서는 용을 조각하여 필산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잡한 조각보다는 깔끔하면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선호하여 오봉(五峯)으로 만든 것이 주류이다.이러한 필산 또한 문방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멋을 살릴 수 있는 소품이다



도20. 백자필산(白磁筆山)



도21. 청화백자필산(靑畵白磁筆山)



도22. 자연석 필산(自然石筆山)



도23. 당조일품명필산(當朝一品銘筆山)

7) 문진(文鎮)

문진(文鎮)은 글씨를 쓸 때에 종이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도구이다. 혹은 서진(書鎮)이라고도 한다.(도24) 문진은 종이를 누르는 것이지만 무조건 무거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종이가 운필할 때 끌리지 않을 정도의 무게면 충분하다. 문진은 단순히 종이를 누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형태와 미적인 분위기를 살려 글귀를 써놓거나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였다.



도24. 도자쌍문진(陶瓷雙文鎮)

8) 필통(筆筒)과 지통(紙桶)

필통(도25), (도26)은 붓을 꽂아 두는 통을 말하고 지통(도27), (도28)은 종이를 보관하는 통을 이름인데 흔히 쓰던 종이 두루마리를 임시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통의 특성상 형태는 원통형이 압도적이지만 사각형, 육모형, 팔모형, 십이모형 등이 있다. 지통이 필통보다는 조금 크며 필통의 경우 대개 높이는 9-14cm내외, 지

름이 7-13cm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에 남아 있는 유물을 살펴보면 다른 문방구와는 달리 만드는 재료의 폭이 다양하고, 또한 다른 문방구에 비해 기물의



도25. 투각문 필통



도26. 청화백자명문 필통



도27. 지통



도28. 육각형 지통

표면이 넓어서 표현할 양식이나 대상도 다양하고 용이했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의 표현기법을 보면 붓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각(刻)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필통에서는 투각기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9) 봉니(封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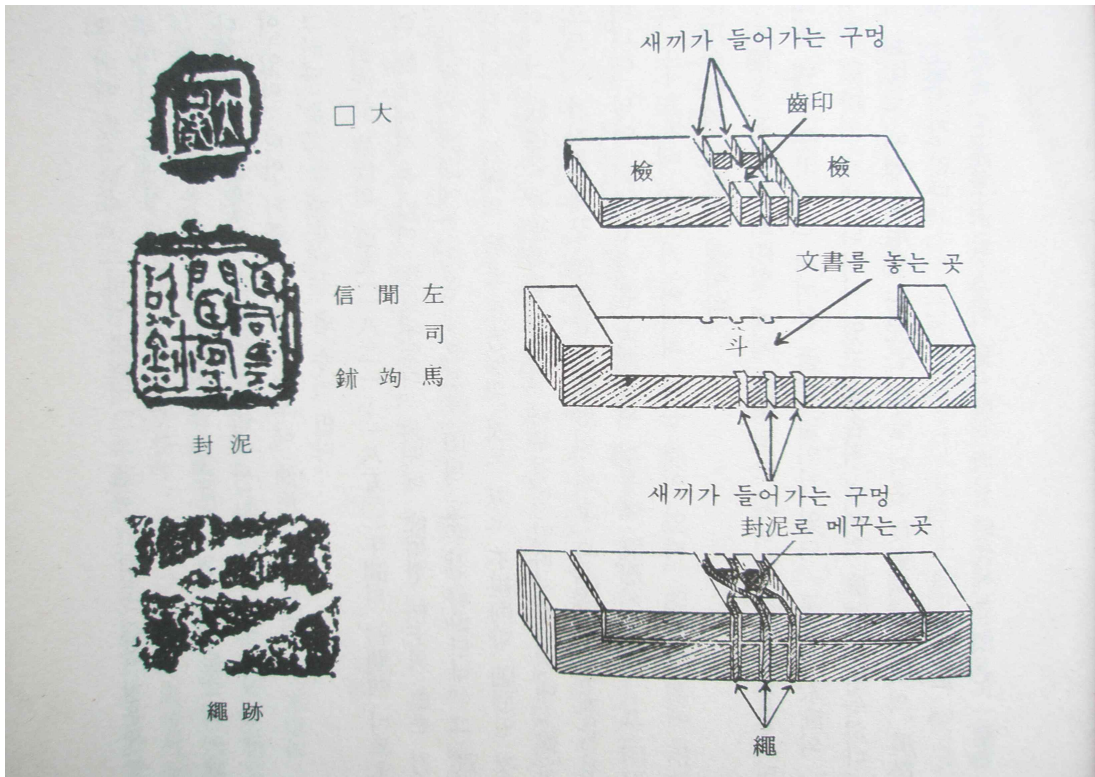
고대인들이 사용한 인장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봉니(封泥)는 니봉(泥封)이라고 하기도 하며 과거 중국에서 문서(文書)나 서신(書信) 따위를 끈으로 묶어 봉할 때 쓰던 아교질의 진흙덩어리를 일컬어 부르던 말이다. 이는 아직 종이가 발명되기 전의 고대인들은 대나무나 나무판 또는 비단을 이용해 글을 썼기 때문에 생겨난 인장대신의 신표를 나타내는 독특한 경우이다. 흔히 전적(典籍)이나 서신(書信)을 통칭 간독(簡牘)이라 하는데, 간독은 가늘고 폭이 좁은 죽편(竹片)과 비교적 넓고 두터운 목판(木版)을 지칭한 죽간(竹簡), 목독(木牘)을 이르는 말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²⁶⁾에 따르면 “간(簡)은 첩(牒)이다” 라고 했다. 첩은 죽편과 목편을 가리키며 간(簡)은 대부분 중요한 공문이나 서적, 율령(律令) 등을 기록하는데 썼으며 간서라고 한다. 또한 독(牘)은 목간을 가리키며 사적인 편지, 계약 내용이나 장부 등을 기록할 때 썼다. 편지를 쓴 후에는 비슷한 크기의 목판을 이용해 독(牘) 위에 글자를 새긴 표지(表紙)를 했는데, 이 목판을 가리켜 검(檢)이라고 했으며 검은 지금의 편지봉투와 유사한 것으로 그 위에는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가 있었고 이를 서(署)라고 했다. 한편, 독과 검을 노끈을 이용하여 하나로 묶은 것을 함(緘)이라고 했으며 비밀을 유지하고 전달자가 몰래 편지를 뜯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 위에 고랑을 새긴 뒤 구멍을 뚫어 끈을 묶고 그 위로 진흙을 단단히 덮은 뒤 인장을 찍어 신표(信標)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봉니(도29)의 역할이다.

봉니는 전국시대부터 한나라를 거쳐 위진(魏晉)시대까지 널리 쓰였지만 진(晉)나라 이후 종이가 널리 보급되어 간독을 대신하면서 봉니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수결(手決)²⁷⁾이나 인장(印章)으로 신표를 대신하게 된다.

26) 중국 後漢 시대 許慎이 편찬한 字典으로 한자 9,353자를 수집하여 540部로 분류하고 六書에 따라 글자의 모양을 분석하고 해설한 문자학의 고전이다.

27)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이나 그 글자를 이르는 말, 오늘의 서명 혹은 사인sign을 이르는 말.



도29. 봉니(封泥)

3. 도자 문방제구의 특징

도자기는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우리 조상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쓰임이 많았고, 문구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도자(陶瓷)문구는 벼루를 비롯해서 필통, 연적, 지통, 묵상, 묵호, 필가, 문진, 도인 등을 들 수 있다.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예술작업의 도구로 사용해온 한·중·일 동양 3국 중에서 유독 우리 나라 도자문구는 다양성과 아름다운 자태(姿態) 그리고 빛깔이 두드러진다. 화려한 중국 도자문방구의 원채색 그림과 곰살곳은 일본 도자문구의 형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도자문구의 색깔은 추종을 불허할 만큼 관절(冠絶)하다. 특히 문방의 으뜸 장식이라 할 만한 필통과 연적의 다양성과 아름다

움은 더욱 그러하다.

고려의 청자, 백자 그리고 조선조 분청, 백자문구에 베풀어진 상감, 음각, 양각, 투각, 철사, 진사, 청화의 회화적인 아름다움과 물형(物形)적인 다양성은 단연 돋보인다. 이를테면 연적의 모양에서 소, 돼지, 개, 해태, 호랑이, 닭, 용, 봉어, 잉어, 두꺼비, 거북이, 오리, 박쥐, 원숭이, 다람쥐, 나비, 그 외에 집, 산(금강산), 복숭아, 감, 모과, 껌작, 물통상자, 연꽃, 매화, 부채, 따리, 젓(유방), 보주, 무릎, 참새, 동자(童子), 승(僧), 이외에도 네모, 팔모, 원통, 등 주변의 삼라만상이 조형 모티프가 된 듯한 디자인 감각은 참으로 기특(奇特)하다.

이들 도자문구는 필통의 붓을 꽂아둔다든지 연적의 물을 담아둔다든지 하는 기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지만 자칫하면 무미건조하기 쉬운 선비의 사랑(舍廊)을 생기 있고 화사하게 꾸며주는 장식성까지 더하고 있어 선비들의 일상의 여유와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소품이라 아니할 수 없다.²⁸⁾

4. 제주자연의 토착이미지로써 현무암

돌섬에서 태어나 돌섬에서 자라고 일생을 마쳤던 제주인은 거추장스러운 돌을 잘 이용할 줄 알았다. 제주의 문화는 돌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돌문화는 정신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 돌문화의 중심에 현무암이 있다. 그리고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절해고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화산섬 제주의 자연은 바람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바람의 흔적을 온전히 간직한 것이 다공질(多孔質)의 현무암(玄武巖)이다.

그렇다면 화산섬인 제주에서 화산활동은 언제 있었으며 다공질 현무암은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제3기 말인 플라이오세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화산활동은 4회의 분출유회로 구성되며 각 분출유회마다 현무암의 유출→조면질 안산암 또는 조면암 분출→화산쇄설물 분출의 과정을 거쳤다.

28) , 『文房寶品百選展』孔畫廊, 2000, p3

제1분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120만 년~94만 년 전)에는 서귀포층 밑의 기저현무암이 형성되었고, 후기(90만 년 전~70만 년 전)에는 제주도 남쪽 해안에 해당하는 서귀포와 안덕면을 중심으로 조면암질(粗面巖質) 용암이 분출하여 급경사의 화산지형(산방산, 범섬, 문섬 등의 용암원정구)이 형성되었다. 산방산 조면암이 포함되는 이들 화산암은 제주도지표에 분포하는 가장 오래된 화산암이다.

제2분출기는 약 70만 년~3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검은 색을 띠는 표선리 현무암의 열하분출로 타원형을 이룬 동서방향의 제주도 용암평원(용암대지)이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생화산과 용암동굴 등이 발달하였다.

제3분출기는 약 30만 년~10만 년 전으로 중심분화에 의해 한라산 순상(楯狀) 화산체가 형성되었다. 제주도 남쪽과 북쪽의 해안지대와 전체 중산간 지대를 덮고 있는 제주 현무암과 하효리 현무암은 이시기에 분출했다. 16만 년 전에는 한라산 정상 서북벽을 중심으로 한라산 조면암이 분출하여 용암원정구(鎔巖圓頂丘)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제4분출기는 10만 년~2만 5천 년 전으로 후화산작용에 의해 오름과 같은 기생화산이 대부분 형성되었고, 백록담 현무암이 분출되면서 백록담분화구가 만들어졌다. 제주도의 기반암은 화강암인데 대륙판 위로 화산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섬이다. 현무암이 제주도 지표면의 90%이상을 덮고 있다.²⁹⁾

제주의 형성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의 돌은 화산암이라는 특성상 형질이 다채로운 편은 아니다. 제주돌은 구멍이 많고 주로 검은 색으로 비현정질 현무암이 대부분이다. 혹은 회색의 조면암(粗面巖)이 있으나 역시 풍화에는 약한 편이다. 제주돌은 기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화산암은 화산이 폭발할 때 공기중에 노출되어 굳어지면서 기공이 생긴 때문에 작은 선이나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이 굵고 거친 표면의 현무암 특성상 세련된 촉감보다는 질박한 느낌이 두드러져 보인다. 실제로 제주의 현무암은 투박함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무암으로 만든 제주의 석물(石物)이 주는 느낌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는 이유도 이 투박함 때문이다. 미세하고 세련된 기교를 부릴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재료적 특성에 내재되어있다. 그렇다고 투박함이 격조(格調)를 떨어뜨리는 것

29) , 『제주의 돌문화』, 서귀포문화원, 2012, pp34~35

은 아니다. 제주의 화산암 풍토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토착성을 갖고 있으며, 이 투박한 토착성이야말로 제주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³⁰⁾

5. 제주자연의 명명화(命名化)로 파생된 문명이미지로서 백록담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부터 시작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이다. 여러차례의 화산 분출 결과, 섬의 중앙에 해발 1950m의 한라산(漢拏山)이 솟아나게 되었다.

한라산이 언제부터 불려졌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을 통해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미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라산의 지리적인 중요성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인식은 옛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제주 지도는 주로 17~19세기에 제작된 것이 많으며 한라산을 중심으로 마을, 하천, 방어시설, 목장 등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승지,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대표적인 곳을 비롯하여 지금은 사라진 옛 지명들이 표기되어 있어 당시의 제주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한라산은 은하수를 어루만질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으며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로 영주산(瀛洲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제주사람들은 두피오름[두무악(頭無岳)], 두리메[원산(圓山)], 가메오름[부악(釜岳)]등으로 불렀으며, 민요와 신화에서는 한로산, 하로산, 하로, 한로영주산, 한락산 등으로 불렀다.³¹⁾

한라산은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산이다. 조선시대사람들은 백두산에서 뻗은 기맥(氣脈)이 한라산으로 이어졌다고 여겼다. 1750년 실학자 이종환(李重煥)이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우리나라의 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 산천조(山川條)에 한라산을 영주산(瀛洲山)이라 하기도 한다. 산위에 큰 못이

30) ,p38

31) 김성명, 『漢拏山』, 국립제주박물관, 2013, p10

있는데, 매양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문득 구름과 안개가 크게 일어난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모난 바위는 사람이 쪼아서 만든 것 같다. 그 아래에는 잔디가 지름길처럼 되어 있어 향긋한 바람이 산에 가득하다. 가끔 적대의 툭소소리가 들려 오나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며 전해오는 말에는 신선이 항상 노는 곳이라 한다.³²⁾

백록담에 관한 기록을 보면, “한라산 맨 꼭대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돌이 둥그렇게 둘러있는데, 주위가 약 10리이다. 그 가운데가 마치 술과 같이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 안에 물이 가득하다. 담의 북쪽 구석에 기우단(祈雨壇)이 있다. 숲이 벌여 있고 사계절 아름다운 봄처럼 냉쿨향기가 두루 멀리 미치어 향기가 신발에까지 스며든다. 산열매는 어떤 것은 검기가 칠과 같고 어떤 것은 붉기가 주사(朱砂)와 같은데, 맛은 달콤하고 또한 향기마저 있으니 진짜 선과라 하겠다. 산 위에는 바람기운이 싸늘하여 비록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덧옷을 생각나게 한다. 눈들어 끝 간곳을 보면 사방이 바다인데 물과 하늘이 맞닿아 가까이 있는 여러 섬들이 눈아래에 별처럼 벌여 있고, 멀리는 등래(登萊), 영파(寧波), 류구(琉球), 안남(安南), 일본(日本)이 역시 아득한 가운데 어렴풋하게나마 모두 가기킬 수 있다. 웅장한 경치을 큰 뜻을 품고 구경함은 이보다 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창해(蒼海)가 술잔이요, 천하가 좁다는 것은 아마 이를 두고 말한 것이리라. 옛날에 어떤 산지기가 밤에 못가에 엎드려 있는데 천 백이나 되는 사슴의 무리가 이 곳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마리 뿔이 길고 털빛이 하얀 사슴의 등에 웃음뎀 백발의 노인이 타고 있었다. 산지기는 놀라고 괴이하여 감히 범접할 수 없어 소나무 뒤의 한 마리 사슴을 겨냥하였다. 잠깐 사이에 노인이 점검하더니 한 번의 긴 휘파람소리를 내자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못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대략 이러하다.”³³⁾

백록담에 관련된 시가 여러 편이지만 작자 미상의 시귀를 읊다보면 마치 백록담을 눈앞에서 보는 듯 한데 시의 내용은 이렇다. “오월의 사슴 못엔 신록을 뿜내며 개운한데, 방울 방울 아롱진 잔설은 맑은 거울이어라.”³⁴⁾

32) , p16, p32

33) 前掲書, p99

34) 녹담오월방신칭(鹿潭五月放新晴), 잔설영롱일경칭(殘雪玲瓏一鏡淸)

이러한 문자기록물의 대부분이 조선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선비문화와 문자기록문화의 관련성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이름난 명산이었기에 조선시대 관료나 유배객들 조차도 한라산에 관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한라산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였다. 특히 한라산의 백록담과 영실기암, 방선문 등은 선계(仙界) 비경(秘境)으로 꼽아 『영주십경(瀛洲十景)』에서 새롭게 품제(品題)하고 많은 문인(文人)묵객(墨客)들이 기록을 남겼다. 특히 현재까지 현지에 남아있는 마애(磨崖)³⁵⁾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양적인 면을 보면 상춘(賞春)의 행락지로 또는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수련장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있으며, 선조들의 풍류사상의 일단을 엿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절해고도 제주의 바람과 돌이 만들어낸 척박한 자연환경은 한편 이조의 건국 초기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대의명분을 짊어지고 입도(入島)를 자처한 충절가문(忠節家門)의 둔세(遁世)의 철학적 삶을 실천한 인문환경과 결합되면서 제주특유의 산림처사적 선비문화의 기저를 형성하게 된다. 더구나 유배문화의 영향으로 왕도(王都)의 사대부 문화가 유입되기도해 변방 제주의 선비문화의 수준은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한라산이니 백록담이니 하는 경승지등의 명명화(命名化) 과정에서 토속신앙이라든지 유교, 불교, 도교사상의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의 상징으로써 한라산, 한라산의 상징으로써의 백록담은 백발이 성성한 산신령, 십장생으로 꼽히는 흰 사슴, 하늘의 은하수와 맞닿은 연못, 이듬해 오월까지 남아있는 영롱한 잔설 등에서 불로장생과 지고지순한 순결이라는 문명이미지가 함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35) (石壁)에 글자나 그림, 불상(佛像)따위를 새김

Ⅲ. 문방제구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문방제구(文房諸具)는 우리의 선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비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설상가상 글로벌경제상황과 맞물려 값싼 외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국내산 문방구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접근성이 좋은 대형마트나 전문문방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서예용구세트(도 30)에 담긴 벼루(도 31)를 비롯한 문진, 필산(도 32), 연적(도 33)은 한결같이 플라스틱 제품이고 붓도 필관은 플라스틱 제품이고 붓털은 인조모이거나 탄력성이 없는 저질 제품이 판매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전문필방의 진열장에도 외국산인 경우가 태반이어서 우리의 전통적 문방의 검소한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저질 저가의 문방구의 경우 학교의 미술시간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초보자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플라스틱 벼루의 경우 먹을 가는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예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먹을 갈면서 행해져



도30. 서예용구세트



도31. 플라스틱벼루



도32. 플라스틱 필산



도33. 플라스틱 연적

야할 현완운필(懸腕運筆)의 기초 습득이라든지 작품의 구상과 같은 사고의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결과지향적인 그야말로 반서예적이며 반교육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문자생활의 방식이 다르고 문방구의 사용치나 방식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편의성보다 문방구의 상징성이나 의미를 고려한 제작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문방구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끼는 미감의 촉발이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래서 선인들의 검소하면서도 방정한 생활철학과 여유를 즐기는 풍류사상의 전통정서를 바탕으로 지역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장식적 요소로 가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IV. 시작품의 제작 과정 및 설명

1. 시작품의 제작 배경

산업화를 거치면서 서양문화의 확산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교육환경이나 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고 더불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단순히 보는 위주의 간접체험에서 직접체험해보는 환경으로 변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먹고 살기 바쁜 고속성장시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사고의 습관 형성은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무미건조한 삶의 양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맞는 전통문방구를 제작함에 있어 실용성을 바탕으로, 문방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는데 도움을 주는 벗으로 여겼던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성을 담아보고자 시문(詩文)이나 명언구(名言句)를 도자의 시문(施紋)작업에 활용함으로써 장식성은 물론 선비들이 추구했던 과정중심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힐링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측면에서 시작품(試作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통의 문방에서 종이와 먹으로 대변되는 흑백의 이미지를 제주의 토착적 이미지인 현무암(玄武巖)과 문명화된 이미지인 한라산 백록담의 흑백이미지에 매치하여 흑토와 백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도자의 시문(施紋)에 사용한 문구는 복잡한 것 보다는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의 취향을 고려하였고 한편 한자 특유의 축약적(縮約的) 의미와 회화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였다.

2. 시작품의 제작 과정

제작공정으로는 소지, 성형, 건조, 1차 소성, 시유, 2차 소성, 3차 소성순으로 하였다.

1) 소지

시작품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소지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소지는 성형시 가소성을 갖고 건조 후 강성을 유지해야하며 소성시 소결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³⁶⁾ 제주의 토착이미지인 현무암의 검은 색과 붉은 색 그리고 백록과 한라설경의 순백색 이미지를 차용하여 흑토와 백토를 소지로 사용하였다.

2) 성형

성형방법은 원형의 기물은 물레성형을 기본으로 하였고, 사각형의 경우 판성형 후 속파기 기법을 사용하였다. 기물의 종류는 벼루, 연적, 수병, 화병, 문진, 필산, 필통, 지통, 도장 등을 제작하였다. 문자의 표현은 기물을 반건조 후 뽀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1차 음각하여 그 속을 채우는 백상감(白象嵌)기법을 이용하였다.(표 1)

1)

<표1> 백상감 성분 및 조합비

성분	조합비(%)
와목	40
규석	30
카오린	30

3) 1차소성

소성은 도자 공정에 있어서 빼 수 없는 과정으로 소지의 소결강도를 증가시키고 시유의 편의성과 유약의 흡수를 쉽게 하기도하고 밀착력을 높여 기물의 파손

36) 吳昌潤, 『백자 한식기 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2001, p21

율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시작품은 기물의 파손율을 줄이고 유약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예열하여 완전 건조 후 870℃까지 12시간 소성하였다.

백토를 이용한 시작품의 경우 1차 소성 후 철화 안료를 이용하여 기물에 붓으로 문자를 서예기법으로 표현하였다.(표2)

<표2> 철화 안료 성분 및 조합비

성분	조합비(%)
백토	40
철(Fe)	60

4) 시유

시유라 함은 소지에 유약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초벌구이 후에 소지에 직접 시유함으로써 기물의 강도를 증가시켜주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이물질의 흡수를 차단하고 세척 등의 사용상 편의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시유 방법으로는 담금법과 분무법, 화필법, 흘림기법 등이 있다.

본 시작품의 경우 흑자는 현무암의 촉감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유소성하였으며, 백자 기물의 경우 담금법을 이용하여 시유하였다.

유약의 조합비는 다음과 같다.(표3)

<표3> 투명백유 성분 및 조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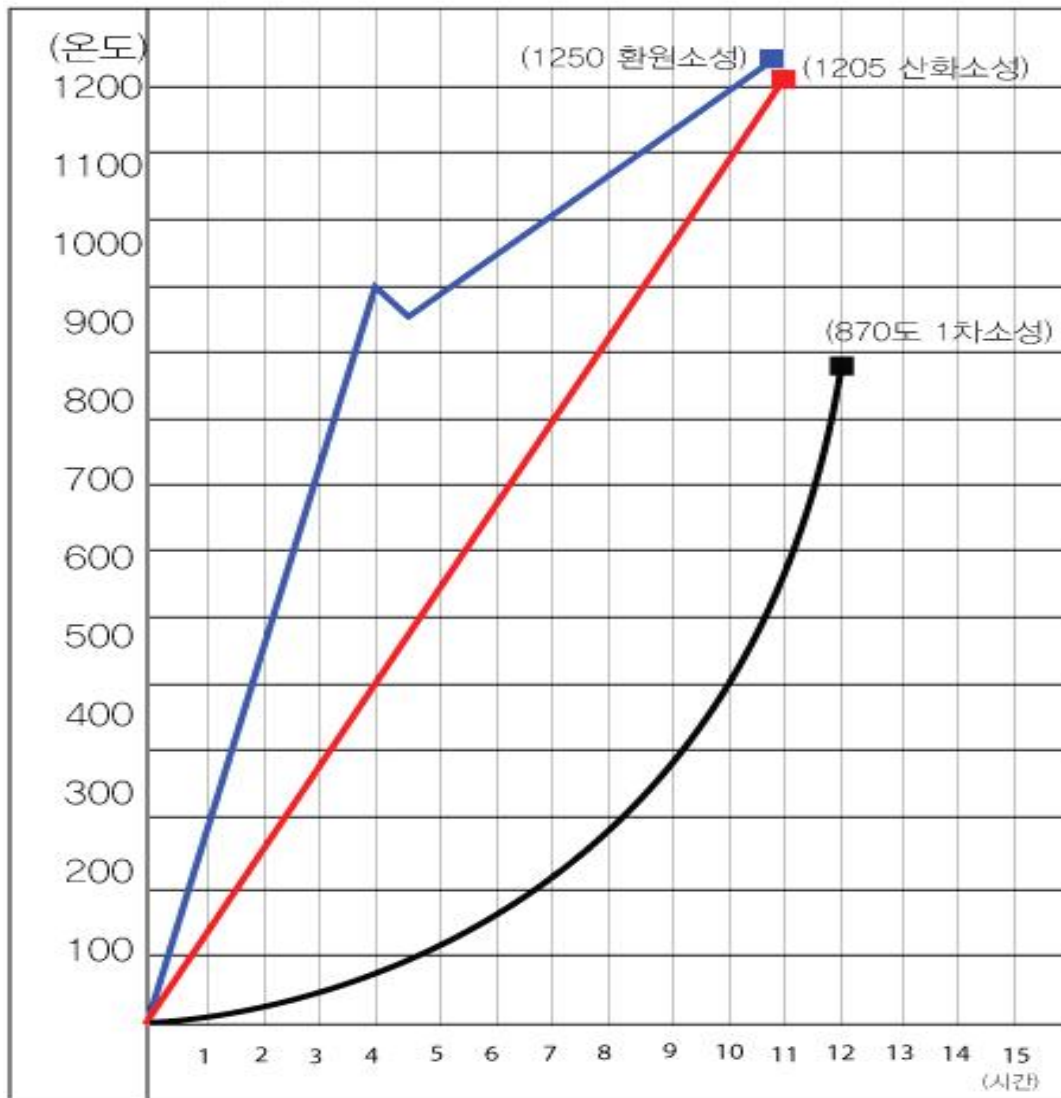
성분	조합비 (%)
장석	40
규석	20
석회석	15
도석	15
카오린	7
활석	2
산화아연	0.5
탄산바륨	0.5

5) 2차 소성

도자제작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2차소성이라 할 수 있다. 소성방법에는 소성 시작단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시켜 사용연료가 완전 연소 될 수 있게 하는 산화소성과 가마 안에 산소를 불충분하게 하여 연료가 불완전 연소됨으로써 연소 가스중 일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환원소성의 방법 등이 있다.

본 시작품은 백자소지의 경우 유약의 발색 등을 고려하여 0.5루베 가스가마에서 1250℃까지 환원소성 하였고, 흑자의 경우 발색을 감안하여 0.3루베 전기가마를 이용하여 1205℃에서 무유산화소성 하였다. (표4)

<표4> 소성곡선표



3. 시작품의 설명

시작품 1. 독좌관심명(獨坐觀心銘) 베틀

옛 선비들은 하루를 먹을 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맑은 물을 떠다 베틀에 붓고 먹을 갈면서 하루를 계획하기도 하고 읽을 거리와 써야 할 글의 내용을 보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먹을 가노라면 어느새 문방에 먹향이 가득하고 정신은 한없이 맑아지니 나와 우주의 경계가 사라진 무아의 경지이다. 물이 담겨있는 둥근 연지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심(觀心)의 경지라 아니할 수 없다.

본 시작품은 독좌관심명(獨坐觀心銘)³⁷⁾ 베틀로 "고요한 밤 홀로 앉아 제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뜻을 충분히 살리고자 먹을 가는 부분인 연당(硯堂)에 턱을 없앴으로써 단순화 시켰고, 사람의 타고난 천성을 원형에 담아 연지(硯池)를 둥글게 표현하였다. 흑토가 가진 물성의 차가움과 백토의 맑고 밝은 색조이미지를 매치하여 수행자의 냉철한 자기성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작기법은 판성형을 하고 뾰족한 도구로 글씨를 새긴 후 백상감을 이용하여 새긴 글자에 상감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유소성하였다. 소성온도는 870℃에서 1차 소성 후 1205℃에서 11시간 동안 산화소성 하였다.

37) "夜深人靜 獨坐觀心 始覺妄窮 而眞獨露 每於此中 得大機趣 既覺眞現 而妄難逃 又於此中 得大慙慚. 밤이 깊어 인적이 고요한 때에 홀로 앉아 제 마음을 살피노라면, 비로소 허망함이 사라지고 진실만이 오롯이 드러남을 깨닫게 되면 늘 이러한 가운데 큰 즐거움을 얻는다. 이미 진실이 앞에 드러났는데도 허망함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 또한 이런 가운데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채근담)



시작품 1. 독좌관심명(獨坐觀心銘) 베틀

시작품 2. 비인마묵묵마인명(非人磨墨墨磨人銘) 행연(行硯)

비인마묵묵마인(非人磨墨墨磨人)³⁸⁾은 중국 당송팔대가로 알려진 宋代의 대문호 소동파가 만년에 속절없이 나이만 들어 노쇠함을 한탄한 글귀로 후학이 느끼는 바가 적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없음을 핑계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옛 선비는 벼루에 먹을 갈면서 마음의 안정되면 굳이 붓을 들어 글을 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쯤 되면 사람이 먹을 가는 게 아니라 먹이 사람을 가는 경지가 아닐까.

본 시작품은 모름지기 선비는 "만권의 책을 읽고 천리의 길을 걸어야"³⁹⁾ 진정한 문인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고사성어에서 착안하여 문인 묵객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작은 벼루인 행연(行硯)의 형식을 빌어 제작하였고, 더불어 소동파와 김추사 같은 불세출의 문인 묵객의 파란만장하면서도 치열한 삶과 예술혼을 바람 타는 섬 제주의 세찬 해풍을 견뎌낸 다공질 현무암이미지에 담아 제작하였다.

제작기법은 판성형을 하고 뾰족한 도구로 글씨를 새긴 후 백상감을 이용하여 새긴 글자에 상감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유소성하였다. 소성온도는 870℃에서 1차 소성 후 1205℃에서 11시간 동안 산화소성 하였다.

38) 蘇軾 次韻答舒教授觀余所藏墨, "非人磨墨墨磨人 墨入毫端變化神 縱得淋漓成萬軸 祇增頭上雪霜新" 사람이 먹을 간 게 아니라 먹이 사람을 갈았구나. 먹이 붓 끝을 적시면 변화가 신묘하네. 흙뽕 적셔서 만권의 두루마리를 쓴다 해도 늘어나는 건 머리위의 눈서리만 쌓이네."

39)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 화가 겸 서예가인 동기창은 그의 저서 《화선실수필畫禪室隨筆》에서 "讀萬卷書 行萬里路 진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 길을 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작품 2. 비인마묵묵마인명(非人磨墨磨人銘) 행연(行硯)

시작품 3. 수복명(壽福銘) 연적(硯滴)

연적은 베틀물을 담아두는 전통적인 기능성이 아니어도 어디서나 다양한 역할의 소품으로써 가치가 있는 도구이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또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이는 고금(古今)을 통하여 변함없는 인정의 상리(常理)이다.

본 시작품은 이러한 사람들의 염원을 제주의 특산물인 한라봉과 복주머니의 형상에 현무암의 이미지를 매치하였고, 시문은 제주의 곳곳 경승지의 마애각석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자연스럽게 "수복(壽福)" 자를 표현하였다.

제작기법은 판성형을 하고 뽀족한 도구로 전면에 “수(壽)” 자는 예서체(隸書體)⁴⁰⁾로, 후면에 “복(福)” 자는 전서체(篆書體)⁴¹⁾로 새기고 유약을 바르지 않고 소성하였다. 소성온도는 870℃에서 1차 소성 후 1205℃에서 11시간 동안 산화소성 하였다.

40) (篆書)를 간략화한 것으로 좌서(左書)라고도 한다. 일설에는 중국 진(秦)의 시황제(始皇帝) 때 옥리(獄吏)였던 정막(程邈)이 옥에 종사하는 사무원(徒隸)들의 문서가 번잡한 것을 줄이기 위해 대전(大篆)을 개선하여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예서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한다.

41) 한위(漢魏) 이전에 쓰이던 글자체이다. 협의로는 주문(籀文)과 소전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주문, 춘추전국시대 각국에서 통용되던 문자와 진대(秦代)에 창시된 소전을 가리킨다. 가장 오래된 글씨체로 가장 위엄 있고 장중한 맛이 있다.



시작품 3. 수복명(壽福銘) 연적(硯滴)

시작품 4. 낙명(樂銘) 화병(花瓶)

논어(論語)에 안빈락도(安貧樂道)하는 선비의 삶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준 구절이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에 물마시며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속에 있구나, 떳떳하지 않게 부유하고 또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나에게서 뜯구름과 같다."⁴²⁾ 한편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 9년간 유배생활에서 드문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제주의 토박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귀한 줄을 모르고 잡초처럼 여기고 뽑아 밭두둑에 버린 수선화를 화병에 담아 서창(書窓)에 놓아두고 감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본 시작품은 제주에 지천으로 널려 있어 추운 겨울 매화와 함께 봄을 알리는 금잔옥대(金盞玉臺)라 불리는 수선화를 위한 화병이다. 안빈락도(安貧樂道)하는 선비의 단아하면서도 웅건한 기상을 장중한 전서체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작기법은 판성형을 하고 뾰족한 도구로 글씨를 새긴 후 백상감을 이용하여 새긴 글자에 상감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유소성하였다. 소성온도는 870℃에서 1차 소성 후 1205℃에서 11시간 동안 산화소성 하였다.

42) 자왈 반소사음수 곡굉이침지 낙역재기중의 불의이부차귀 어아여부운 (子曰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論語 述而篇)



시작품 4. 낙명(樂銘) 화병(花瓶)

시작품 5. 산수문(山水紋) 문진겸용필산(文鎭兼用筆山)

문진은 책장이나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누르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고, 필산은 먹이 묻은 붓을 바닥에 닿지 않게 베개처럼 받쳐 두는, ‘山’ 자 모양으로 생긴 물건이다.

본 시작품은 문진(文鎭)과 필산(筆山)을 결합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필산(筆山)은 이름에 걸맞게 장중(莊重)한 한라산의 이미지와 백록담의 잔설(殘雪)이 녹아 내려 폭포를 이루는 제주자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제작기법은 판을 밀고 타렴으로 성형을 하고 뽕족한 도구로 폭포수 형상을 새긴 후 백상감을 이용하여 새긴 곳에 상감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유소성하였다. 소성온도는 870℃에서 1차 소성 후 1205℃에서 11시간 동안 산화소성 하였다.



시작품 5. 산수문(山水紋) 문진겸용필산(文鎮兼用筆山)

시작품 6. 사선명(寫禪銘) 필통(筆桶)

선비가 먹을 가는 행위는 단순히 잉크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본 시작품은 붓이 쓰일 때만이 아니라 필통에 꽂혀 있을 때에도 마치 선정(禪定)에 든 수행자(修行者)를 연상하면서 둥근 형태와 백자토의 확장하는 느낌은 정중동(靜中動)으로, 응축된 느낌의 철화안료로 물 흐르듯 유려한 행서체로 일필휘지한 것은 동중정(動中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백자를 이용하여 물레로 성형하였고, 철화안료를 이용하여 붓으로 글씨를 쓰고 유약은 투명백유를 담금법으로 시유(施釉)하였다. 소성은 870℃에서 1차 소성 후 1250℃에서 11시간 동안 환원소성 하였다.



시작품 6. 사선명(寫禪銘) 필통(筆桶)

시작품 7. 삼여명(三餘銘) 지통(紙桶)

물건이 통에 담겨 있다는 것은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삼여(三餘)"의 본래 뜻은 선비가 책읽기 좋은 세 번의 여유로운 시간을 이룸이니 하루의 여가는 밤이요, 한 달의 여가는 비오는 때요, 일 년의 여가는 겨울을 일컫는다. 농경시대에 선비가 농한기 여가를 틈타 주경야독하는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본 시작품 삼여명(三餘銘) 지통(紙桶)은 해와 달 그리고 오악(五嶽) 문양을 다공질 현무암, 특히 용암이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모티브로 태고의 신비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물고기 세 마리"를 부조(浮彫)형식으로 덧 붙여 문인화의 독화법⁴³⁾을 응용하여 작품을 시도하였다.

제작기법은 판성형을 하고 뾰족한 도구로 일월오악문(日月五嶽紋)과 글씨를 새기고, 물고기는 따로 만들어 붙인 후 백상감을 이용하여 새긴 글자에 상감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유소성하였다. 소성온도는 870℃에서 1차 소성 후 1205℃에서 11시간 동안 산화소성 하였다.

43)삼어(三魚) 옛 그림 읽는 법(동양의 그림은 특히 문인화는 독화讀畫라 하여 그림을 읽는다고 하였다.)에 물고기 세 마리는 삼어로 읽는 관례가 있다.



시작품 7. 삼여명(三餘銘) 지통(紙桶)

V. 결론

맹자(孟子)의 공손추(公孫丑)편에 “경가도어(耕稼陶漁)” 라는 말이 있다. 농사짓고, 그릇을 굽고, 낚시질 한다는 뜻으로 인류의 문화를 함축하는 말이다. 또한 훈도(薰陶)라는 말도 있다. 흙을 다져 질그릇을 굽고 만든다는 뜻으로, 사람의 품성(稟性)이나 도덕(道德) 따위를 잘 가르치고 길러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함을 이르는 말이다.

문화는 도구의 사용과 더불어 발전해온 인류의 고유한 특성이다. 인류의 문화는 도기(陶器)와 문자(文字)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용기 개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저장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용기(容器)를 만들기 시작했다. 도기(陶器)는 물건을 저장하는 그릇이요, 문자는 인간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듯 도자(陶瓷)와 문자의 역사는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실용품(實用品)에 심미적(審美的) 안목(眼目)을 더한 것으로 도기(陶器)만한 것이 없다. 도기는 시대의 추이와 지역의 경계에 관계없이 줄곧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용(實用)과 예술(藝術)이라는 양면성을 길항(拮抗)하면서 자리매김해왔다. 문자예술(文字藝術) 또한 실용성(實用性)과 예술성(藝術性)을 견지(堅持)하면서 발전해왔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문(文)을 숭앙하고 의리(義理)를 존중하였고, 학문을 연마하고 정신을 수양(修養)하는데 필요한 문방제구(文房諸具)를 소중히 다루어왔다. 특별히 종이, 붓, 먹과 벼루를 문방사우(文房四友)라 일컬었고 선비의 방에 없어서는 안 될 벗으로 의인화(擬人化)하여 대우했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문자생활은 문방제구의 사용처나 방식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현재의 문방제구는 실용적이면서 편리한 것이 각광을 받고 있다. 초고속을 지향하면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고 외래문화의 범람은 전통문화의 뿌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표현에 있어 만년필을 거쳐 볼펜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음성인식 등 새로운 형태로 발달해가고

있다. 놀라운 속도로 발달해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기술개발에 적응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인간은 기술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⁴⁴⁾하듯 물자(物資)의 개방화(開放化)와 현대화(現代化)는 우리 고유의 정서(情緒)와 정체성에 왜곡현상(歪曲現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대두는 우리의 정서와 정체성 회복을 역설적으로 응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경제여건의 호조세로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관람(觀覽)문화에서 체험(體驗)문화로의 변화추세는 전통문화복원과 더불어 우리 고유의 정서와 정체성회복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출발하여 문자를 활용한 전통적 문방제구(文房諸具) 제작에 있어 각 문방구의 기능에 부합하는 명언구(名言句)를 시문(施紋)함으로써 실용성과 장식성이 어우러진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벼루는 예로부터 사람의 마음에 비유되어 먹을 가는 행위가 마음 받을 가는 행위와 같다고 여겼다. 그래서 벼루에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이나 수행에 관련된 문구를 시문(施紋)한다든지, 연적의 경우 물을 저장(貯藏)하는 용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라봉⁴⁵⁾과 복주머니 형상을 접목하여 복자(福字)와 수자(壽字) 등 인간의 염원(念願)을 상징하는 문구를 시문(施紋)하였다. 지통(紙桶)의 경우 종이의 넉넉함이나 비어있음 또는 채워있음과 관련된 구절을 선택하여 시문하는 등 기타의 문방제구의 경우도 시작품(試作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능과 장식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과정을 통해 종이문화에 의존하던 서예(書藝)를 도예(陶藝)문화에 접목함으로써 평면예술(平面藝術)으로써 서예의 시간적(時間的), 시공간적(視空間的) 한계성을 극복하였으며 종이와 먹이라는 흑백의 이미지를 제주의 현무암이라는 자연이미지와 백록담이라는 문명화된 이미지로 치환한 작품시도를 통하여 선비문화의 정신을 힐링의 차원으로 계승하는 서예의 현대적 효용성(效用性)을

44) 법칙 (Gresham's law)

45) 귤의 품종 중 하나로, 크고 아름다운 꼭지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라봉의 원산지는 일본으로 1972년 청견과 폰강이라는 품종을 교배시켜서 만들었다. 일본에서의 이름은 데코폰(デコポン). 한국에는 199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제주도의 특산물이 되었다. 꼭지 부분이 마치 한라산의 봉우리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한라봉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모색하는 성과를 얻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예의 정신성(精神性)과 도자의 불변(不變)의 장식적(裝飾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표현기법 및 재료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高雲山, 「옷질을 添繪한 陶版의 繪畫的 表現 研究」, 석사학위, 제주대학교산업대학원, 2005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대문자전」, 통천문화사, 서울, 2011
- 김동수,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서울, 1991
- 국립제주박물관, 「漢拏山」, 디자인나눔, 2013, p10
- 김유정, 「제주의 돌문화」, 서귀포문화원, 2012,
- 董其昌 著·변영섭외3인 譯 「畫眼」, 시공사, 서울, 2004
- 鄧散木, 「篆刻學」, 雲林堂, 서울, 1984
- 渡邊隆男, 「甲骨文·金文」, 二玄社, 東京, 1990
- 宣柱善, 「書藝概論」, 美術文化院, 서울, 1986
- 실버바벳 저·김리나 역, 「미술품의 분석과 서술의 기초」, 시공사, 서울, 1995
- 오창윤, 「제주문화, 제주옹기」, 술과학, 서울, 2010
- 오창윤, 「백자 한식기 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단국대학교대학원, 2001
- 오창윤, 「제주옹기(甕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단국대학교대학원, 2010
- 李年洙 編著 「文房寶品」, 이화문화出版社, 서울, 2001
-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서울, 1991
- 정태수 「월간 書藝文化-文房四友길라잡이」, 서예문화연구원, 서울, 2000. 2
- 조용진 저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서울, 2013
- 朱熹 編著 「論語集註」, 三省出版社, 서울, 1990
- 朱熹 編著 「孟子集註」, 三省出版社, 서울, 1990
- 하승우, 「文房寶品百選展」, 공화랑, 2000
- 洪自誠, 「菜根譚」, 文藝出版社, 서울, 1978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8m0915b>(브리테니커 백과사전)
- IRI색채연구소, 「102가지 Color Training」, 영진닷컴, 서울, 2004